

불어권 캐나다 대표 조제 로베르지의 성찰



친애하는 마리아니스트 형제 자매 여러분,

전염병으로 힘들었던 작년, 퀘벡 MLC 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먼저, 모임을 가지지 못해 예전이 그리웠습니다. 화상회의 말고는 서로 간의 유대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 정부의 위생조치로 한 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계기삼아 약 20 명의 회원이 마리아니스트 센터를 통해 3 일간의 짧은 피정을 두 차례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상의 양식, 개인적인 양성을 위한 양식이 되는 작은 월간 소식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베아트리체 르블랑

총장님의 양성을 주제로 회람을 보내왔습니다. 저희 나름으로 회람을 분석하고 게시판을 이용해 그 내용을 각자 곰곰이 생각해 보고 나누었습니다. 글은 길었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미 회람과 관련된 몇 가지 주제를 선택했고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입니다. 아마 다음 피정의 주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MLC 회원들이 이 회람을 잘 활용했으면 합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로 많은 할 일과 기초적인 교육은 물론 평생교육과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 한 많이 활용할 것을 추천 드리고, 국제팀, 특히 사랑하는 베아트리체 자매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불어권 캐나다의 마리아니스트 신앙 교육 센터 소식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 2020-2021년은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했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기술을 받아들이고 창의적으로 가족, 공동체,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법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마리아니스트 신앙교육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신도 마리아니스트의 열의로 활기를 얻은 센터는 창립 은사와 사명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고, 성령의 숨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센터 부지 전체를 이용한 혁신적인 복음전도와 신앙교육 사업으로 "인터랙티브 트레일 (대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찬미 받으소서 (Laudato Si')로부터 환경적인 측면과

창조의 아름다움에 대해 영감을 받은 것으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영성을 키울 수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혼자서, 가족과 함께, 또는 단체가 같이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개인적으로 신앙적 복돋음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 아름다운 여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하느님의 섭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기부해주시는 분들의 관대함에만 의지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몇몇을 제외한 모든 협력자들은 자원 봉사자여서, 저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file:///C:/Users/marce/OneDrive/Docs%20from%20desktop/Marianist%20Things/International%20Org_MLC/Gifts%20&%20Tasks/Articles%20for%20G%20&%20T/2021/June%202021/Photos%20sentiers%20\(1\).pdf](file:///C:/Users/marce/OneDrive/Docs%20from%20desktop/Marianist%20Things/International%20Org_MLC/Gifts%20&%20Tasks/Articles%20for%20G%20&%20T/2021/June%202021/Photos%20sentiers%20(1).pdf)

둘째, 마리아니스트 센터는 케베 교구와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주교님의 제안을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구는 천주교신자와 사목회에게 지금 바로 성인의 신앙교육을 우선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해, 실제로 사람들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는 작은 모임 또는 조직인 "하우스"를 이끌 고무자 (animator)를 양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리아니스트 은사는 저희가 이미 이런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 샤티나드 신부님께서 이끄시던 신자들은 새로운 일을 맡게 되어도 여전히 복음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창립 아래로 그래왔던 것처럼 작은 공동체 리더의 양성과 동행을 "전문적으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교회와의 결속을 강화할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거듭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리아니스트 은사가 형제자매들에게 모두 돌아가도록 하소서.